



攝
心
實
愛
慈
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라-2143(월간·년구독료2만원)

東友會報

1996年(欽紀4329年) 9月17日 第174號 (1)

발행인 黃明夏
편집인 申永秀
인쇄인 朴性主

東國大學校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층2호

전화 : 733-3991 ~ 3

FAX : 733-3992

은행지로번호 7500891

2006 동국 100년 통일시대 대비 민족사학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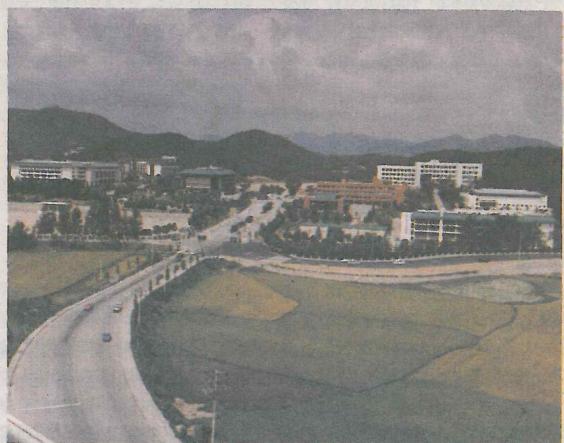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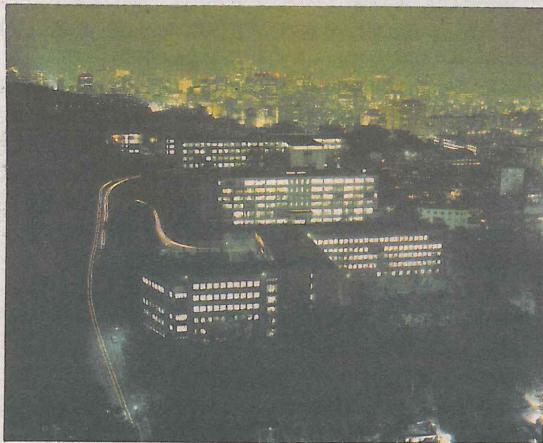
(사진설명)

①	
②	③

① 98년 착공하여 2002년 완공예정인 통일시대 대학타운 일산캠퍼스 조감도.

② 학문의 열정으로 불아성을 이룬 모교 서울캠퍼스

③ 역사의 현장 경주에 위치한 모교 경주 캠퍼스 전경



지면안내

- 2면 : 본회소식
- 지부지회소식
- 3면 : 지부지회소식
- 4·5면 : 동문동정
- 6·7면 : 회비명단
- 9면 : 모교소식
- 10·11면 : 지부지회 소식

제13회 동국인 체육대회

15만 동국인 대화합의 장이 될 제13회 동국인 체육대회'와 '전야제' 및 제'3회 동국인 골프대회'가 개최됩니다. 총동창회 주최·지역개발대학원 동창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 대회는 지리적 한계와 선후배의 벽을 넘어 뜨거운 동문애를 확인하고, 개교 1백주년을 맞이하게 될 모교의 발전을 염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제13회 동국인 체육대회

일시: 10월 13일(일) 오전9시

장소: 모교 경주캠퍼스 체육관

◇ 체육대회 전야제

일시: 10월 12일(토) 오후 6시30분

장소: 경주 코오롱호텔 대연회장(야외)

(우천시 실내)

◇ 제3회 동국인 골프대회

일시: 10월 12일(토) 오전 11시

장소: 경주 보문 C.C

- 행사문의처: 총동창회 사무처 전화(02)733-3991~3

FAX(02)733-3992

지역개발대학원동창회 전화(0561)745-2981

FAX(0561)745-2981

동국인체육대회준비위원회

동우장학회 장학금 수여

총 17명에게 1천7백만원 지급



총동창회 산하 재단법인 동우장학회(이사장=황명수·53정지)는 지난 8월 23일 12시 모교 학술문화관 세미나실에서 총동창회 임원진과 모교 송석구 총장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학생 17명(본교 11명·경주캠퍼스 6명)에게 총 1천7백만원(1인당 1백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유주형(57농학) 수석부회장이 대통령 특사로 남미를 순방중인 황명수 재단법인 동우장학회 이사장(총동창회 회장)을 대신해 장학금과 증서를 전달했다. 유수석부회장은 축하의 말을 통해 "앞으로도 동국대학 교의 발전과 각 개인의 발전을

위해 가일층 학업에 열중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사회에 나가서도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큰 재량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는 동국인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송석구(62철학·본회 지도위원) 모교 총장은 격려말을 통해 "동우장학금은 졸업한 선배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인 만큼 선배들의 정성어린 마음을 가슴깊이 새겨 달라"고 부탁했다.

재단법인 동우장학회는 1995년 2월 21일 교육청의 설립허가후 1995년 7월 13일에 현판식을 가진 뒤 1995년 9월 첫장학금으로 재학생 12명(본교 8

명, 경주캠퍼스 4명)에게 총 1천2백만원을, 그리고 고시생들을 위한 고시장학금 5백만원 등 총 1천7백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 2월 23일 96학년도 1학기 장학금으로 새학생 18명에게 총 1천8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6월 26일에는 고시장학금으로 5백만원을 지급했다.

동우장학회는 기본자산 4억 1천만원의 기금으로 년간 수익금 4천1백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본회는 동문들에게 장학금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기본자산 10억을 목표로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은 장학금 수상자 명단이다. ▲김정태(철학 4)▲강재영(사회 4)▲박지연(경영 3)▲홍성주(응용생물 3)▲권현선(산업공학 3)▲정재희(가정교육 2)▲박정대(체육교육 3)▲임성옥(경영 4)▲신은정(영어영문 1)▲이상호(정보산업대학원 정보관리 2학기)▲이영규(일반대학원 경영 1학기)▲이수진(불교아동 3)▲심규철(중어중문 4)▲서승옥(생화학 3)▲김성민(관광경영 3)▲이용길(의학 3)▲박선현(국제관계 2) 이상 17명

제13회 동국인 체육대회가 오는 10월 13일 오전 9시부터 모교 경주캠퍼스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또한 체육대회 전야제가 이에 하루 앞선 10월 12일 경주 소재 코오롱호텔 대연회장에서, 같은날 오전 11시부터 경주보문 C.C에서 제3회 동국인 골프대회를 각각 열기로 확정됐다.

전국의 각 지부지회를 총망라 범 동국인 화합의 장치가 될 동국인 체육대회는 본회 주최, 지역개발대학원 동창회 주관으로 열리며 총동창회회장은 배재정(영남동문 친선 체육대회로 출발 영남 - 호남 체육대회를 거쳐 전국적 행사로 정착되어 이번이 3회째를 맞이했다.

현재 대회 참가가 결정된 팀은 서울 총동창회, 경주지회, 동창회, 부산지부, 대구지부, 대전지부, 천안지부, 충북·청주지부, 울산지부, 포항지부, 광주지부, 전북지부, 경주캠퍼스 재직동문회 등이며 미확정지부는 참석자명단을 9월 30일(월)까지 지역개발대학원동창회 운영본부로 통보하면 된다.

동문들간의 우의를 다지기 위해 개최될 골프대회의 참가

희망자 역시 각 지부를 통해 참가의사를 밝히고 참가팀 명단을 9월 30일(월)까지 지역개발대학원동창회로 통보하면 된다.

골프대회 우승트로피는 그날 오후 열리는 동국인 체육대회 전야제에서 시상한다. 지역개발대학원 동창회는 전화 0522)61-0082~4, 0561)745-2981이다.

하계총회 개최

동대 동림회

동국대학교 동림회(회장=김종호·70임학·임협중앙회 흥보실장)는 지난 6월 15일 경기도 양평군 소재 대명촌도에서 '제14회 '96년도 하계총회'를 개최했다.

동림회는 64년도 임학과 입학동기로 구성되어 동문간의 우의를 증진하고 회원간의 상호상조와 모교발전의 초석이 되기 위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김종호(임협중앙회 흥보실장)▲부회장=김덕수(71임학·세방가스상사 대표)

▲감사=전경수(71임학·포천고등학교 교사)▲총무=박종건(68임학·프랑스리본 대표)

하회 및 송별회, 장기근속자에 대한 축하회, 그리고 수시로 각 부문별 모임 등을 가짐으로써 동문간의 친목 도모 및 회사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개인발전 및 회사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퇴직 동문들과의 유대 관계 또한 활발하여 정기 모임 시 꾀현직 동문들과 자리를 같이하여 친목을 다지고 있는 것이 유한 동우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유한 동우회는 년 3회의 정기모임을 갖고 인사이동시 축

동문회 탐방

유한양행동우회

개인·회사발전 도모

유한양행 지부는 1979년 신흥균(62경제), 김정호, 차중근, 임택호 동문을 중심으로 서로 각자의 존재만 알고 있다가 그 해 동문들을 규합하여 동문회를 결성하였다. 초대 회장에는 신흥균, 총무에는 임택호동문

을 중심으로 동문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였으며 2대 이정주, 3대 차중근, 4대 김정호동문이 각각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4대 회장 김정호동문의 자고로 인해 2대부터 현재까지 총무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인



회장직무대행 김인수 동문
수 동문이 회장 직무대행직을 맡고 있다. 유한 동우회는 유
한양행 내에서 타 동문회가 부
려워하는 단결력과 응집력을

가지고 30여명의 동문들이 각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유일한 회장이 설립한 유한 양행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퇴직 동문들과의 유대 관계 또한 활발하여 정기 모임 시 꾀현직 동문들과 자리를 같이하여 친목을 다지고 있는 것이 유한 동우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유한 동우회는 년 3회의 정기모임을 갖고 인사이동시 축

직장 사업 희망자

직장 향수에 젖어 계십니까?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새 사업 구상 중입니까?



창업은 행복의 문!
오직 "정성"하나 만
으로 노크하십시오.
직장·사업 모두
만족을 드립니다.
오공 전자사업부
상담 752-2568

김길진 (65 상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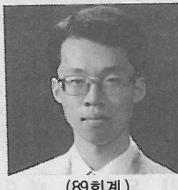


-격조높은 훼딩과 세련된 피로연
-700대 무료주차와 셔틀운행
-나이트웨딩 및 주중결혼식 할인
남산신숙속-

TOWER HOTEL 웨딩홀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산 5-5
문의:(02)236-2121(대표)
(02)236-3340(판촉부)

판촉지배인 남태석 (관광경영 84학번)



(94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석사)

영진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세무사 신동욱

서울·강남구 청담동40-29 제일빌딩4층
TEL:(02) 544-2278(대)
FAX:(02) 544-2383

전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최형우동문 초청 조찬회

21세기는 “정보화 시대” 역설
1백여동문 모여 우의 과시

동국언론인회(회장=정운경·60국문·중앙일보 전무·본회 이사)는 지난 9월 11일 오전 7시30분 롯데호텔 36층 피코크룸에서 ‘최형우동문 초청 조찬회’를 가졌다. 이번 조찬회에는 동문 및 초청자들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30여분간 회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정운경 언론인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한 후 “최동문은 의리있는 정치인으로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몸을 둘보지 않고 열심히 뛰었다”고 말했다.

송석구 모교 총장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동국인은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선택의 기로에 있는 이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같이 실천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최형우 동문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문 여러분에게 감사한다”고 밝혔을 때 연 후 “역사도 작은 일이 모여 이루어 지듯이 오늘의 이 자리를 저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간직하겠다”고 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 사 사장과 넷스케이프 사장을 만나서 많이 배우고 반성도 많이 했다는 최동문은 “세계는 21세기를 향해 힘차게 변화·발전하고 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진다면 과거 대원군의 해국정책으로 인한 역사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 있다. 이에 우리는 21세기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시켜 우리나라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법적·제도



적·뒷받침을 하기 위해 국회 정보화추진 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설립취지를 말했다.

그리고 최동문은 “선배님, 친구, 후배님들의 도움으로 37년간의 정치생활을 벌릴 수 있었다.

또한 굴복하지 않고 한걸음으로 뛰어온 것은 동국의 전통이 몸에 베어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진정한 정치인은 인·력을 생각하고 정치를 이끌어야하며 내일의 국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회합·통합의 정치를 실현하여 21세기 생활의 정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동문은 “동국의 명예와 전통, 선·후배를 위해 앞으로도 옳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송석구 모교 총장, 이중화 세종대학교총장, 백영철 관동대학교총장, 이성림 국악협회 이사장, 박준영 신라교역 회장, 황용운 동부그룹부회장, 김영환 대우 부회장, 임덕규 디플로머시지 사장, 박도근 선경증권 사장, 이두철 삼창기업 사장, 박은규 대동철강 사장, 이능희 태평양화학사장, 이두세 오성공업사 회장, 신상두 감사원 감사위원, 김재형 KBS제작위원, 이창식 MBC 예술단 단장, 문병호 WIN 주간, 이장일 CBS 상무, 이종수 SBS 드라마제작국장, 이춘기 SBS 홍보실장, 홍월표 시의회 위원, 개그맨 김형곤 등 문등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선·후배간의 풋풋한 정을 느끼며 담소를 나누는 자리였다.

김명기, 윤영위원장 최용환(67농학), 수석부회장 김종식(70정외), 총무 유종희(65농생) 동문등 임원진을 선출했다.

그리고 회장을 역임한 동문은 고문으로 모시기로 회칙을 개정함으로써 전임 회장인 서성래(62농생·본회 상무이사)동문은 동대문·중랑 동문회 고문으로 추대됐다.

후배들에게 한 권의 책을



—모교에 도서보내기운동 및 도서기금 모금운동을 시작하며—
본 동창회에서는 개교 90주년을 맞이하여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모교에 〈도서보내기 운동〉 및 〈도서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대학의 발전이 열심히 연구하는 교수, 학생들에 불타는 학생들로부터 비롯됨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그 기초가 도서관 발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모교 도서관은 그 동안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 100만권의 장서를 바라보게 되었으며, 4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도서관전산화 시스템의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명문대학, 세계의 대학으로의 도약을 목표로하고 있는 모교로서는 그 장서량과 기기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동창회에서는 우리의 후배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책과 더불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낸 책 한권이 후배들의 학문 연마에 큰 힘이 되고, 모교의 비상에 밀거름이 될 것입니다.

동문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996. 9.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 황명수

접수방법: 도서직접 운송(자택이나 사무실에 있는 책 운송) 도서상품권 참여

기금참여(지로번호: 7500891 외화: 150-22-01536-0 예금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접수처: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처 110-300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7-28번지 백상빌딩 302호

TEL 02)733-3991~3 FAX 02)733-3992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과 02)260-3451

지도자 연수세미나 개최

2백여 불대원 동문 참석

불교대학원 총동창회(회장=김성호·93불원)는 ‘제2차 지도자 연수 세미나’를 지난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 강릉 등명 낙가사에서 열었다. 2백여명의 참석자들은 등명 낙가사 약사전 약사여래 좌상 조성기금 9백만원을 즉석에서 모금해 주지스님께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불교대학원 원장 목정배(62불교·본회 상무이사) 교수와 선심리학 박사 이광준씨의 특강이 있었다.

목정배 교수는 ‘불교적 측면에서 본 정정자연’을, 이광준 박사는 ‘정신분석과 선심리학’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목정배 교수는 불교적 측면에서의 청정자연은 마음을 바로 잡는데서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특강을 펼쳤다. 이는 불교적 수행의 궁극적 목적과도 연관되며 행복한 삶을 사는 지름길이 된다는 주장이다. 목교수는 “가장 행복한 삶은 지혜롭게 사는 삶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맹목적으로 신앙하는 것보다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믿음없이 아는 것만 많으면 삶은 견해가 늘어나고 알지 않고 믿는 것이 있다면 맹신만 증장하게 된다”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의 균형을 강조했다.

결국 “불교의 궁극적인 수행

은 마음을 바로 잡는 일이며, 수행하는 사람은 부모에 효성하고 의리를 귀히 여기며 예도 범절에 회복하고 인욕을 생활화하고 이웃을 위해 보시하는 마음을 갖고 범사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는게 목교수의 결론이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이광준박사는 오디푸스 컴플렉스와 불교의 아자세 컴플렉스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이 둘을 서로 비교하면서 불교사상이 현대인의 정신적 고통을 구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박사는 오디푸스 컴플렉스와 아자세 컴플렉스는 서로 동성에 대해 적대감정을 갖는 등의 공통점은 있지만 오디푸스 컴플렉스의 경우는 성장기의 자연스런 현상이고, 아자세 컴플렉스는 전생 업으로 인한 것이기에 근본적으로 틀리다고 설명하면서 상이한 원인으로 인해 극복 방법도 서로 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오디푸스 컴플렉스는 자라면서 생기는 정상적 인격발달과정이지만 아자세 컴플렉스는 그 수준을 넘어 도의 성취로 이어진다는게 이박사의 설명이다.

알림: 불교대학원 총동창회는 동창회 사무실을 장충동소재 뉴장충빌딩 5층(35평규모)에 마련하고 9월 중순경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同門동정



本人의 근황이나 주위 동문들의 제소식등이 있으면 언제라도 제보바랍니다.

대통령 경축특사 황명수 회장



▲ 황명수 (53정치) 본회 회장은 지난 8월 7일 출국하여 압둘라 하이메 부기장 애파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특사로 참석했다. 황회장은 또한 김영삼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의 협력관계 증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황해문화대담사 출항식 송석구 총장



▲ 송석구 (62철학·교양총장·본회 지도위원) 동문은 지난 7월 21일부터 4일간 중국 철강성을 방문하여 한반도와 중국남방지역의 고대 교류 항로를 대나무 맷목으로 항해하는 황해문화대담사 출항식을 주관하고 항저우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하버드대 최고과정 수료 권노갑 동문



지난 9월 3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미국 하버드대 개발지도자 최고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8월 29일 출국했다.

창립 50주년 축하연 이석용 동문



▲ 이석용 (58정외·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본회 부회장) 동문은 지난 8월 1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포리자호텔 덕수홀에서 창립 50주년 축하연을 가졌다. 이동문은 기념사에서 "창립 반세기를 맞아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한 시장확대,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교통사고 예방활동 등 보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업계발전과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등에 힘쓴 보험업계직원, 경찰공무원, 언론계인사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동문은 또한 지난 8월 5일 공주군 삼육재활센터를 방문하여 제10회 애틀란타 장애인 올림픽을 앞두고 훈련중인 선수단에 성금을 전달하고 격려하기도 했다.

행정대학원 출강 김종일 동문



▲ 김종일 (58법학·전경찰대학장·치안경감·본회 이사) 동문은 오는 2학기부터 모교 행정대학원에 출강, 「경찰소직 관리론」을 강의한다.

학술교류 자매결연 민병천 동문



▲ 민병천 (58대원·서경대총장·본회 상무이사) 동문은 지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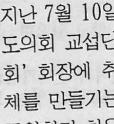
8월 13일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공과대학과 학술교류 자매결연을 하고 15일 귀국, 16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무소속동의회 회장 취임 선진규 동문



▲ 선진규 (59불교·경남도의원·본회 부회장) 동문은 지난 7월 10일자로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무소속 동의회」 회장에 취임했다. 교섭단체를 만들기는 전국에서 경남도의회가 처음이다.

남영최병익 서법전 최병익의 동문



▲ 최병익(행정) 동문은 지난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상해시 미술관에서 「남영최병익서법전」을 열었다.

대표선수단 격려 이상윤 동문



▲ 이상윤 (60정외·대한석탄공사 사장·본회 상무이사) 동문은 지난 7월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 체육부대를 방문하여 제10회 애틀란타 장애인 올림픽 참가를 위해 강화훈련중인 한국 대표선수단을 격려했다.

삼미그룹 북미법인 고문취임 김재기 동문



▲ 김재기 (60경제·본회 부회장) 동문은 지난 6월 19일 삼미그룹 북미법인 고문으로 영입됐다. 또한 김동문은 지난 7월 19일 한국케이블 TV방송협회 회장직을 사임했으며 8월 1일자로 사단법인 한국사회문화연구원 상임고문으로 취임했다.

전국신도회 회장 추대 박완일 동문



▲ 박완일 (61불교·본회 부회장) 동문은 사단법인 조계종 전국신도회의 제19대 회장에 전격 추대됐다.

지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경주에서 열린 제15차 전국불교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서 명예회장인 박완일 전회장을 새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박동문은 이날 강연에서 조계종 전국신도회의 정통성과 전통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조계종 전국신도회는 조계종에서 추진중인 중앙신도회나 종무원의 행보를 의식하지 않고 유일한 전국신도조직이라는 자부심으로 자신감 있게 활동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해 참석자들의 길체를 받았다.

세계국제법협회 논문발표 박영길 동문



▲ 박영길 (64법학·법과대학장·저작권 심의조정 위원·본회 이사) 동문은 지난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필란드 헬싱기대학에서 열리는 세계국제법협회 제67차 정기총회 국제상사중재 위원회에서 논문 발표를 했다.

강원발전 세미나 개최 오진모 동문



▲ 오진모 (61법학·강원개발연구원 원장·본회 부회장) 동문은 지난 9월 3일 춘천 세종호텔 3층 세종홀에서 강원개발연구원 개원 2주년을 기념하여 「21세기 사회조류변화에 대응하는 강원발전의 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원개발연구원에서는 「강원비전 21, 탄광지역살리기 대회」 등 강원도의 중·장기 개발 전략과 지역경제 진흥 등 지역 개발과 관련된 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강원도정에 대한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국방위원장 임명 김영구 동문



▲ 김영구 (62경제·본회 부회장) 동문은 제15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에 임명됐다.

김동문은 5공출범당시 민정당 전국구로 정계에 입문한 이래 서울에서 내리 당선된 5선 중진의원이다. 친화력과 정치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는 김동문은 92년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약했으며 현정부 출범후 원내총무, 정무1장관을 맡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자서전 출판 최형우 동문



▲ 최형우 (63정외·국회의원·본회 지도위원) 동문은 지난 7월 자신의 자서전인 「더 넓은 가슴으로 내일을」 증보판을 펴냈다. 최동문은 93년 발간한 초판에 91년 3당합당 이후의 정치역정을 추가해 증보판을 냈다.

최동문은 또한 지난 8월 9일부터 12일동안 밤들 미공화당 대선후보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 공화당 전당대회를 참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을 만나 독도와 백두산 천지를 각각 일본과 중국 영토로 표기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세계지도 CD롬 내용을 고쳐줄 것을 요구했으며, 또한 넷스케이프사의 마크 앤드리슨 사장과도 만났다.

국제학술회의 개최 송재운동문



▲ 송재운 (64철학·교수·한국국민윤리학회 회장·본회 이사) 동문은 지난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모교 학술문화관에서 「유불도 삼교와 한·중·일 근현대 윤리사상」을 주제로 제3회 한·중·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한·일 경제협력 세미나 김희오 동문



▲ 김희오 (64정외·지역개발대학원 원장·본회 이사) 동문은 지난 7월 2일 출국하여 3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에서 「인도네시아 경제개발과 한국 경제협력」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했다.

환경노동위원장 임명 이금규동문



▲ 이금규 (65법학·본회 운영위원) 동문은 제15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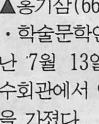
이동문은 한국기자협회장을 다섯 차례나 역임한 언론인 출신으로 성격이 원만하고 대인관계가 부드럽다는 평을 듣고 있는 3선의원이다. 13대 때 민정당의 공천으로 지역구인 서천에 출마하면서 정치권에 입문한 이동문은 자민련 총재비서실장, KBS이사 등을 역임했다.

상무이사 취임 이주형 동문



▲ 이주형 (65경제·본회 이사) 동문은 지난 6월 5일자로 26년동안 근무했던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자회사인 노량진 수산주식회사 상무이사로 취임했다. 이동문은 "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농수산물 유통경제 부문의 선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학술문화연구소 이전 홍기삼 동문



▲ 홍기삼 (66국문·교수·학술문화연구소장) 동문은 지난 7월 13일 오후 3시 모교 교수회관에서 연구소이전 리셉션을 가졌다.

**조인식 참석
박도근 동문**

▲박도근 (65상학·선경증권(주)사장·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지난 6월 25일 출국하여 26, 27일 뉴욕서 열린 한일 다이아몬드 투자실타설정 조인식과 한국이동 통신 주식예탁증서 상장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지역난방공사 사장 취임
김태곤동문**

▲김태곤 (65행정·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지난 6월 5일자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김동문은 통상산업부 자원정책실장을 끝으로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며 “큰 과오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기업의 사장으로 일하게 된 것은 동문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또한 “베풀어주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맡은바 임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감사인 대회 참석
김교근동문**

▲김교근 (65경영·국정교과서 상임감사·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11박 12일로 미국에서 열린 ‘국제 감사인 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김동문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4박 5일, 마이애미에서 2박 3일의 일정 등을 마치고 귀국했다.

**자치구 평가 1위
설송웅동문**

▲용산구 (구청장=설송웅·65수학·본회 이사)가 지난 7월 동아일보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서울 25개 자치구 평가에서 종합1위를 차지했다. “행정경험이 없었다는 점 때문에 주민과 직원들은 물론 제 자신도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배우는 자세로 더욱 열심히 했다”는 설동문은 “30만 구민과 1천5백명 직원 모두에게

영예스러운 일”이라며 “공무원 각자에게 최대한의 권한과 책임을 준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자평했다.

**학술대회 개최
박선영동문**

▲박선영 (65불교·묘교 교수·한국종교교육학회장·본회 이사)동문은 지난 6월 27·28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초·중등학교와 종교개혁」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귄터 볼 파르트교수 초청
지관스님**

▲지관스님 (69대원·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본회 고문)은 지난 7월 2일 오후 2시 서울 정릉 경국사에서 독일 부퍼발대학 권터 볼 파르트 교수를 초청하여 「헤겔과 중국 — 불교와 노자사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96 청소년 문화캠프 대회
박현성 동문**

▲박현성 (75행원·대한불교청소년교현연합회장·본회 지도위원)은 지난 7월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96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속리산 유스터운에서 청소년 2백여명을 대상으로 「96청소년 문화캠프」를 개최했다.

**이북5도 지부 격려
정태수 동문**

▲정태수 (78행원·내무부 차관·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지난 6월 25일 새마을운동 이북5도 지부가 종로구 구기동 이북5도청 강당에서 마련한 「남북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정동문은 6월 28일 오전 경남 울산시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동북아시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국제도시간 교류·협력의 방향」에 대한 기조연설을 했다.

영예스러운 일”이라며 “공무원 각자에게 최대한의 권한과 책임을 준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자평했다.

**부이사관 승진
김종현동문**

▲김종현 (82행정) 동문은 지난 8월 5일자로 국회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1년간 과제 근무를 한다.

**정기강연회 개최
이배영동문**

▲이배영 (84행원·사단법인 남북문화교류협회장·본회 이사)동문은 지난 7월 29일 6시 30분 서울 종로 하림각에서 「남북한의 이상과 현실」이란 주제로 제49차 정기강연회를 열었다.

**박사학위 취득
홍준기 동문**

▲홍준기 (93부여·본회 이사)동문은 지난 8월 30일 인천시립대 학위 수여식에서 「상호신용금고 재무정보 활용화에 관한 연구: 부실예측관련 정보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홍동문은 “지난해 매달 1건 폴로 10여건의 금고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금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금융기관 도산에 대한 연구가 더욱 절실한 시점에서 자본시장 개방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신용금고의 부실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논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신용금고 사원 최초로 박사 학위를 따내 화재가 되고 있는 홍동문은 「쉬지 않으면 이루어 진다」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다.

**세계총장회의 참석
신국주 동문**

▲신국주 (48불교·전모교총장)동문은 지난 7월 6일 출국하여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제11차 세계대회 총장회의」에 참석했다.

**로타리 총재 선임
김유복 동문**

▲김유복 (51정치·본회 고문)동문은 국제로타리 제3640지구(서울) 차기총재로 선임되어 지난 6월 15일 CANADA CALGARY에서 개최된 1996년도 세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대표들과 출국했다.

**세계불교법왕 초대법왕
일봉 선교종 종정 서경보스님 열반**

▲세계불교법왕이며 일봉 선교종 종정인 서경보스님(50불교)이 지난 6월 25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종로구 신영동 불교법왕당 내 일봉선원에서 열반했다.

향년 82세, 법립 64세, 제주 서귀포 태생인 경보스님은 32년 제주 산방굴사에서 헤일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모교 불교대학장, 불국사 금강사 주지, 원로의원 등 조계종단의 중요직책을 역임했다.

그러나 서경보스님은 1988년 조계종을 탈종해 「일봉선교종」이란 별도의 종단을 만들었으나 한국 불교의 주류에서 벗어났으며 1992년에는 세계불교법왕청을 세워 초대 법왕이 됐다.

서경보스님은 세계 각국을 무대로 활동을 펼쳐 왔으며 1백 26개의 명예박사학위와 1천 42권의 저서를 갖고 있다. 또 경보스님은 헤아릴 수 없는 서예작품을 남겼고 이같은 정적적인 활동으로 불교계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저명인사가 됐다.

영결식은 지난 7월 1일 상도 10시 모교 대운동장에서 법왕청 사무총장, 조계종 종정,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들 불교지도자와 신도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영결식을 마친 후 법구는 경남 의령 일봉사로 옮겨져 하오 7시부터 대비식이 거행됐다.

또한 김동문은 ‘분도 장애자 재활원’ 후원단체인 진우회 1996년도 총회에서 김원기(전부총리) 후임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하계연수회 실시
목정배동문**

▲목정배 (62불교·불교대학원장·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지난 8월 11일 경기 고양시 성보사에서 「세계불교의 생활화」를 주제로 하계연수회를 실시했다.

**지역방송인상 수상
김종완 동문**

▲김종완 (73법)동문은 지난 9월 3일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제33회 방송의 날 기념식 및 제23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개인상 부문의 공로부문 지역방송인상을 수상했다. 김동문은 현재 대전 문화방송국에 근무하고 있다.

**가산 학술상 수상자 선정
김성철 동문**

▲김성철 (인도철학과 박사·모교 강사)동문은 지난 7월 25일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이지관·전 모교 총장)이 제정한 「제6회 가산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했다.

**해양경찰청장 취임
조성빈 동문**

▲조성빈 (64법학)동문은 지난 8월 해양경찰청장으로 취임했다.

치밀한 성격으로 기획력과 판단력 등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나며 특히 청렴성과 조직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들고 있

는 조동문은 간부후보 17기 출신으로 동기생 중 선두를 달려 왔으며, 서울 경찰청 3부 차장 시절 「범죄와의 전쟁」을 선두 지휘, 폭력배 소탕에 성과를 거두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문학박사학위 취득
신대진 동문**

▲신대진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동문은 지난 8월 23일 모교 대학원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조선후기 실학자의 국방사상 연구」라는 논문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신동문은 “실학자의 국방론은 당시 개혁론의 핵심가운데 하나였는데 연구가 미진했다”며 “논문이 국방정책 개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방병원 진료부장 발령
정지천 동문**

▲정지천 (85한의·모교 한의학과 부교수)동문은 지난 7월 1일자로 동국대부속 경주 한방병원에서 교육연구부장 겸 제5내과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서울 동국 한방병원(서초구 방배4동, TEL 536-5599) 진료부장 겸 제1내과 과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정정기사

제173호 동문동정기사(4면) 중 지방행정연수생 격려 정태규동문을 「정태수」 동문으로 정정합니다.

제173호 동문동정기사(5면) 중 최규철 (66정외) 동문의 딸님 결혼 기사는 「동명이인인 다른사람」입니다. 이에 정정합니다.

(6면에서 계속)	▲김영철(84연영)=20	▲남기언(76행원)=15	▲박태술(64경제)=15	▲심상구(86경제)=15	▲유세곤(83체교)=20	▲이병식(82경원)=15
▲김옥환(72상학)=15	▲남기웅(64생물)=15	▲박태완(68일산)=15	▲심상열(경원)=15	▲유안훈(77경영)=20	▲이변해(83경원)=20	
▲김구섭(75법학)=15	▲김완석(85농학)=15	▲남기형(95경원)=15	▲박해룡(71경행)=15	▲유연택(93화학)=15	▲이병호(75식공)=20	
▲김규종(경원)=15	▲김완주(67통계)=20	▲남현석(93회계)=20	▲박현근(94경영)=15	▲심성희(95국문)=20	▲이부성(67경제)=15	
▲김구일(지원)=15	▲김용기(67화학)=15	▲노동일(89한의)=15	▲박현준(85한의)=15	▲심재용(69상학)=15	▲이상덕(68연영)=20	
▲김근수(78건축)=20	▲김용요(83임학)=20	▲노일환(82국문)=15	▲박형규(93컴공)=20	▲심재호(87법학)=15	▲유종현(행정)=15	
▲김금자(64국문)=20	▲김용필(경원)=15	▲노철규(73정외)=15	▲박홍재(90한의)=15	▲심정근(64정외)=15	▲유준식(80경원)=15	
▲김기수(73국문)=15	▲김용호(88경원)=20	▲노태산(51정외)=15	▲방용호(63경제)=15	▲안계진(59사학)=15	▲유정룡(72법학)=15	
▲김기영(71불교)=20	▲김우겸(71구축)=15	▲류수길(지원)=15	▲배경구(86경영)=15	▲안민동(82행원)=20	▲이상운(78경원)=15	
▲김기재(93행원)=15	▲김원창(71경제)=15	▲류재홍(90경영)=20	▲배상덕=15	▲안병직(84회계)=15	▲유한종(95경원)=20	
▲김기직(61영문)=15	▲김원철(75영문)=20	▲림병태(49불교)=15	▲배상열(88무역)=20	▲안성원(경원)=15	▲이상호(64국문)=15	
▲김길래(92전산)=20	▲김유장(68임학)=15	▲모현민=15	▲배진수(80전기)=15	▲안수병(60법학)=20	▲유흥배(74국문)=15	
▲김낙돌(71경제)=15	▲김윤경(63법학)=15	▲문동복(71경영)=20	▲배치홍(90지원)=20	▲안승준(64국문)=15	▲이석길(60경제)=15	
▲김낙천=15	▲김윤남(95경원)=15	▲문병천(81통계)=15	▲백대승(86영문)=20	▲안용홍(58정외)=20	▲윤영(81건축)=20	
▲김남중(78행원)=15	▲김윤섭(68행정)=15	▲문병희(85경영)=15	▲백상국(83전자)=15	▲안유신(72법학)=15	▲이석태(84국문)=15	
▲김대곤(74철학)=20	▲김은구(63정외)=20	▲문송국(85회계)=15	▲백석기(63경제)=15	▲안재린(83건축)=15	▲윤경수(58영문)=15	
▲김덕영(84경원)=20	▲김은오(73행정)=15	▲문정호(86경영)=15	▲백순석(95비서)=15	▲안창영(64임학)=15	▲이선학(70행정)=20	
▲김돈석(64법학)=15	▲김의창(83수학)=15	▲문현일(93경원)=15	▲백운대(81행원)=15	▲안창웅(88한의)=20	▲윤대일(63경제)=15	
▲김동선(83체교)=15	▲김의수(73건축)=15	▲문현재(80행원)=15	▲변기남(95국민)=20	▲안철환(82경영)=20	▲이성균(89경제)=20	
▲김동수(경영)=15	▲김인식(71경제)=15	▲민경화(68법학)=35	▲변해룡(경원)=15	▲양광석(71식공)=15	▲윤석윤(85경영)=15	
▲김동호(92경영)=15	▲김인태(61영문)=15	▲민동원(68영연)=15	▲시상철(62국문)=15	▲양금식(65행정)=15	▲이성수(80식공)=20	
▲김동원(64정외)=15	▲김일수(경원)=15	▲민창식(81토목)=20	▲서거원(64경제)=15	▲양동원(90전산)=20	▲윤수덕(80무역)=15	
▲김동익(63정외)=15	▲김재동(88경영)=15	▲박 훈(82경원)=15	▲서동일(90전산)=15	▲양병덕(84무역)=20	▲이성한(79경행)=15	
▲김동호(63경제)=15	▲김재룡(69법학)=15	▲박갑순(60국문)=20	▲서병수(62경제)=15	▲양정기(73통계)=15	▲윤율순(52경제)=15	
▲김민관(62영문)=15	▲김재홍(71정외)=20	▲박경덕(87한의)=15	▲서상철(80공경)=15	▲양준수(87무역)=20	▲윤인상(72경영)=20	
▲김맹룡(경원)=20	▲김재홍(93회계)=15	▲박공서(행원)=20	▲서재영(88영교)=15	▲양동원(92법학)=15	▲이수연(89철학)=15	
▲김면수(83행정)=15	▲김정만(62국문)=15	▲박광태(63국문)=15	▲서정열(71상학)=15	▲양희태(88한의)=15	▲윤장근(71법학)=15	
▲김병기(57임학)=20	▲김정용(64사학)=15	▲박귀규(84영문)=15	▲서정연(94행원)=35	▲여규선(91임학)=20	▲이신곤(59법학)=15	
▲김무생(76불교)=30	▲김종권(선학)=15	▲박기영(92전자)=20	▲서현자(90회계)=15	▲여성호(81행원)=15	▲윤장재(85경원)=20	
▲김문식(경원)=15	▲김종남(76경행)=20	▲박기화(91국문)=20	▲설정환(60경제)=20	▲여종규(89통계)=15	▲이애형(95경영)=20	
▲김민규(93한원)=20	▲김종덕(64경제)=15	▲박남준(75국문)=15	▲성금순(88회계)=15	▲여정수(82경행)=15	▲윤창현(75대원)=15	
▲김병은(94행원)=15	▲김종면(행원)=20	▲박무현(89사회)=20	▲성도영(80경원)=15	▲여균식(78농학)=15	▲이인상(88한의)=15	
▲김병택(77일원)=15	▲김종민(95의학)=15	▲박병단(95국제)=15	▲손광웅(76학화)=15	▲여상식(82회계)=15	▲이신희(86법학)=15	
▲김복순=20	▲김종백(44불교)=20	▲박병현(93행정)=20	▲손규현(87경원)=20	▲여인근(64임학)=15	▲이원희(89정원)=15	
▲김봉구=15	▲김종옥(94경제)=20	▲박봉기(89경영)=15	▲손명수(77경원)=20	▲연구철(경원)=20	▲이경로(60법학)=15	
▲김봉규(77국문)=15	▲김종익(60국문)=15	▲박상용(64국문)=15	▲손창수(87한의)=15	▲염상윤(64정외)=15	▲이경식(경원)=15	
▲김봉진(69상학)=15	▲김종익(80국교)=15	▲박성호(89일원)=15	▲손태경(85전산)=15	▲염제균(88영문)=15	▲이경일(경원)=15	
▲김봉학(행원)=20	▲김주남(85경영)=15	▲박세영(경원)=15	▲손호중(93행원)=15	▲염후권(85경영)=20	▲이경성(86전족)=15	
▲김상기(68경영)=20	▲김중환(78전자)=15	▲박수진(82법학)=15	▲송경호(90행원)=15	▲오규석(한의)=15	▲이광섭(69상학)=20	
▲김상기(64경제)=15	▲김진영(87경행)=15	▲박승복(95의학)=15	▲송광우(84수학)=15	▲오기택(84경원)=15	▲이권웅(65경제)=20	
▲김상도(65상학)=15	▲김진택(79농생)=20	▲박승진(61경제)=20	▲송광호(80경제)=20	▲오동익(61경제)=15	▲이기희(91행원)=15	
▲김상동(59법학)=20	▲김진현(58국문)=15	▲박연식(68식공)=15	▲송대룡(72화공)=20	▲오명석(86경영)=15	▲이재원(84건축)=20	
▲김상만(89지교)=15	▲김찬검(93경영)=20	▲박영상(64경제)=15	▲송대원(경원)=20	▲오병훈(63법학)=15	▲이경식(64경제)=15	
▲김상봉(경원)=15	▲김창향(84법학)=20	▲박영선(74행원)=15	▲송동근(경원)=15	▲오성규(79행정)=20	▲이경운(84경영)=15	
▲김생옥(69상학)=15	▲김채연(71법학)=15	▲박영섭(64영문)=20	▲송성환(68경제)=20	▲오성운(88정외)=15	▲이재용(70상학)=15	
▲김석만(89지원)=15	▲김천곤(71법학)=15	▲박영일(90경영)=15	▲송완식(81승가)=20	▲오세창(84전기)=15	▲이근오(64국문)=20	
▲김석희(91무역)=20	▲김철운(81행원)=15	▲박영희(91경원)=15	▲송용빈(77경행)=15	▲오수현(57정외)=15	▲이재원(65불교)=20	
▲김성규(60경제)=15	▲김철조(67농경)=15	▲박용화(80무역)=15	▲송재희(92한원)=15	▲오요한(93경원)=20	▲이재화(71생화)=20	
▲김성래(86행정)=20	▲김정식(경원)=15	▲박원영(79조경)=15	▲송주록(독문)=15	▲오인종(94경원)=15	▲이근학(75영문)=20	
▲김성수(88무역)=15	▲김춘규(법학)=15	▲박유경(86정외)=15	▲송찬영(92경원)=20	▲오정희(72경영)=15	▲이정균(66사학)=20	
▲김성용(77경행)=15	▲김충희(94영문)=15	▲박윤우(62법학)=20	▲송창립(75행정)=15	▲오진완(59정외)=15	▲이재성(86경원)=15	
▲김성일(89행정)=15	▲김태완(75행원)=20	▲박윤태(68상학)=15	▲송원표(86경영)=15	▲오태홍(92지원)=15	▲이균영(84경영)=15	
▲김세정(83행원)=15	▲김태형(88통계)=15	▲박인규(65불교)=15	▲신동립(74두역)=15	▲온봉규=15	▲이재용(70상학)=15	
▲김세제=20	▲김태형(경제)=15	▲박인모(93행원)=15	▲신동욱(86두역)=15	▲왕수일(무역)=15	▲이재원(90경원)=15	
▲김소식(90한의)=20	▲김태환(83경영)=15	▲박장우(경행)=15	▲신동윤(74경영)=20	▲우명기(93경원)=15	▲이재호(90경원)=20	
▲김수기(65경제)=15	▲김판태(67경영)=15	▲박정식(68경제)=15	▲신동훈(87한의)=15	▲우성용(69경영)=15	▲이재현(86경원)=15	
▲김수영(85건축)=20	▲김판호(81행정)=15	▲박정래(83행원)=15	▲신만철(93경원)=15	▲우영철(68상학)=15	▲이달상(64임학)=15	
▲김수철(93정보)=15	▲김해동(59불교)=20	▲박종구(81행원)=15	▲신병진(96경영)=20	▲우희명(74건축)=15	▲이종관(94행원)=20	
▲김수환(79건축)=20	▲김혁배(69응생)=20	▲박종구(65경영)=15	▲신상국(94한의)=15	▲유호창(83전자)=15	▲이동파(64법학)=20	
▲김숙영(62경제)=20	▲김현구(76식공)=15	▲박종선(71전자)=15	▲신서춘(65정외)=15	▲유기승(71경계)=20	▲이동화(87한의)=15	
▲김순제(56경제)=15	▲김현길(77무역)=20	▲박종열(83국문)=15	▲신양인(경영)=15	▲유광희(68응생)=20	▲이동희(88한의)=20	
▲김순호(83경영)=15	▲김호근(61사학)=15	▲박종찬(85화공)=20	▲신왕식(65법학)=20	▲유권중(79경제)=15	▲이준용(73수학)=15	
▲김승현(94행정)=20	▲김호생(80임학)=20	▲박주윤(90지원)=15	▲신윤찬(65법학)=20	▲유기승(71경계)=20	▲이명도(91정외)=20	
▲김신복(95물리)=15	▲김홍모(66상학)=15	▲박준국(81공경)=15	▲신은하(91행정)=15	▲유내형(61영문)=20	▲이창구(65연영)=15	
▲김신식(86한의)=20	▲김홍진(65경계)=15	▲박종서(59경제)=20	▲신은재(96경원)=20	▲유대기(경영)=20	▲이명인(78행원)=15	
▲김임업(59국문)=15	▲김희열(94경원)=15	▲박지환(64경영)=15	▲신중국(67식공)=15	▲유대영(73통계)=15	▲이낙원(95정외)=20	
▲김영규(62정외)=20	▲김희찬(64상학)=15	▲박진호(92한의)=15	▲신충기(74경행)=20	▲유도준(61법학)=15	▲이도기(92화학)=15	
▲김영만(경원)=15	▲나병용(82법학)=20	▲박진영(경원)=15	▲신현찬(58경계)=15	▲유병완(68상학)=15	▲이도련(69화학)=15	
▲김영배(55국문)=15	▲나상진=15	▲박창섭(경원)=20	▲신현철(79무역)=15	▲유상열(63정외)=15	▲이도호(62불교)=20	
▲김영석=15	▲나용인(93경영)=15	▲박춘규(88연영)=15	▲신흥식(농학)=15	▲유상철(90전산)=20	▲이동파(64법학)=20	
▲김영세(90정원)=30	▲남궁선(86농학)=15	▲박춘재(64경영)=15	▲심대식(67농경)=15	▲유성규=15	▲이동화(87한의)=15	
▲김영조(73행정)=15	▲남궁일주(86전산)=15	▲박태룡(70상학)=20	▲심병기(60법학)=20	▲유성열(80공경)=20	▲이병국(73경행)=20	

'8면으로 이어짐'

경찰청 인사

▲최광현(71경행·본회 이사) 동문은 지난 7월 6일자로 경찰청 본청 정보국 정보1분실장으로 인사이동됐다.
 ▲김기영(71불교)동문은 지난 7월 6일자로 서울강동서장으로 인사이동됐다.
 ▲안기성(73경행·본회 이사) 동문은 지난 7월 6일자로 강원전산통신과장(직대)으로 인사 이동됐다.
 ▲오준창(67경행)동문은 지난 7월 6일자로 전북고창서장으로 인사이동됐다.
 ▲정선모(66임학·본회 이사) 동문은 지난 7월 6일자로 전남진도서장(직대)으로 인사이동됐다.
 ▲구재태(67경행·본회 운영위원)동문은 지난 9월 7일자로 경찰청 경무국(보좌관)으로 인사이동됐다.

인사이동

▲이재관(66식공)동문은 지난 7월 4일자로 보건복지부 식품진흥과 부이사관으로 승진됐다.
 ▲전홍국(66식공)동문은 지난

7월 4일자로 보건복지부 식품진흥과 서기관으로 승진됐다.
 ▲김익호(90 정보산업대학원)동문은 MBC 영상제작실장에서 외주제작실 편성위원으로 이동했다.

▲서정호(76경영·본회 운영위원)동문은 지난 7월 5일자로 호텔 소피텔 앰버서더 회장으로 취임했다.
 ▲남기일(72경영·본회 운영위원)동문은 지난 7월 1일자로 삼연유지(주)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고경옥(78행원·본회 이사) 동문은 지난 9월 2일자로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여 목포해양경찰시장에서 해양경찰청 기동방제관으로 인사이동했다.
 ▲손승환(61정치)동문은 지난 7월 1일자로 부산시멘트가공업 협동조합 이사로 전보 발령됐다.

▲홍파스님(67불교·본회 부회장·이무옹)은 지난 7월 9일 '묘각사 55주년 창건법회'를 개최했다.
 ▲황성준(78법학·본회 이사) 동문은 지난 8월 22일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김철규(86경원·백상수불갈비 대표·본회 이사)동문은 지난 9월 3일 오후 6시 모교 다향관 교직원식당 개업식을 했다.

축 화훈

▲7월 6일 서울 상록회관 4층 장미홀에서 김건식(58정외·본회 이사)동문의 차남 김영덕군 결혼

▲9월 1일 마산시 로얄호텔 3층 무궁화홀에서 신준선(72행원·본회 상무이사)동문의 차남 신종승군 결혼

▲6월 11일 63빌딩 별관3층 코스모스 예식홀에서 송보열(57경제·본회 운영위원)동문의 아들 송재호군 결혼
 ▲9월 6일 종로구 부암동 하립각 신관에서 이배영(64행원·은평구청장·본회 상무이사)동문의 딸 이성숙양 결혼

부 음

▲서시용(67행정)=8월 20일 모친상

▲김정화(64경제·(주)뉴현대주택 대표)=7월 24일 모친상

▲신돌영(73법학·본회 사무처장)=7월 14일 모친상

▲박병현(전 기아자동차 연길기술훈련원 원장)=8월 16일 별세

송총장 북미지역 방문

본교 미래 마스터플랜 소개



송석구 모교 총장이 북미 동문회의 초청으로 지난 6월 6일부터 2주동안 미국 LA, 뉴욕, 시카고, 디드로이드와 캐나다의 토론토를 순방하고 19일 귀국했다.

이번 방문에서 송총장은 본교의 미래 마스터 플랜을 해외동문들에게 소개하고 본교 발

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송총장은 특히 이번 북미지역 방문길에 개교 90주년 기념 홍보 영화 및 기념메시지, <비전> 동국 100년 후원의 밤 행사 녹화물 등을 소개하여 동문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은 뒤 모금약정을 받았다.

정년교직원 퇴임식 교수6명, 직원2명

정년교직원 퇴임식이 지난 8월 20일 오전 11시 모교 총장실에서 있었다.

정년퇴임자는 채택수(선학) 교수, 안사명(정보관리학) 교수, 이진규(산업공학) 교수, 김동준(국어교육) 교수, 김창수(역사교육) 교수, 박준학(행

정) 교수, 박종환 총무부처장, 박동권 관재과직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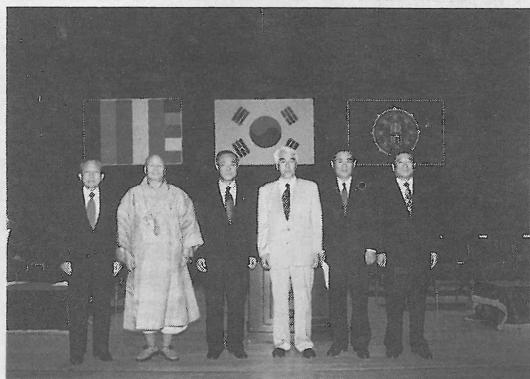
김창수교수는 국민훈장동백장을, 김동준교수는 국민훈장목련장을, 이진규교수는 국무총리표장을, 박준학교수는 교육부장관표장을 지난 8월 24일 각각 수상했다.

〈7면에서 계속〉	▲장상준(58국문)=20	▲정승각(51정외)=15	▲조병률(64국문)=20	▲최낙석(65경제)=20	▲한강택(78경행)=20	▲황경덕=15
▲이태균(85한의)=20	▲장세준(85연영)=15	▲정승조(87경영)=20	▲조병이(88경제)=15	▲최명철(83경원)=15	▲한경희(49국문)=15	▲황규복(63국문)=15
▲이태용(93지원)=20	▲장우제(연영)=15	▲정애경(86한의)=20	▲조성빈(64법학)=20	▲최병곤=15	▲한방희(89경원)=15	▲황규선=15
▲이태우(90지원)=15	▲장원길(66국문)=15	▲정영택(94경원)=20	▲조성욱(73연영)=20	▲최병설(75행정)=15	▲한상기(67상학)=20	▲황동현(81경행)=15
▲이태윤(71법학)=15	▲장인순(82경원)=15	▲정영호(87한의)=15	▲조영준(84경원)=20	▲최보순(64상학)=15	▲한상문(경원)=20	▲황무식(85경원)=20
▲이평재(75경원)=20	▲장철종(67법학)=20	▲정용희(94경영)=20	▲조용복(58경제)=15	▲최부환(95정산)=15	▲한상익(74경행)=20	▲황복동(55국문)=20
▲이필만(63경제)=20	▲전기운(95법학)=20	▲정우식(84경원)=15	▲조용준(83경원)=15	▲최사견=15	▲한요진(61시학)=15	▲황의순(81회계)=20
▲이학도(92무역)=15	▲전기운(95법학)=15	▲정운섭(85경영)=15	▲조원화(69행원)=15	▲최상돈(70임학)=15	▲한우현(94경원)=15	▲황종태(59정외)=15
▲이호배(66정생)=15	▲선용관(83경영)=15	▲정운영(88전산)=20	▲조의래(경원)=15	▲최선우(73경행)=20	▲한운성(84회계)=15	▲황현주(70통계)=15
▲이해도(65국문)=20	▲전종운(경제)=20	▲정우기(85회계)=15	▲조용준(83경원)=15	▲최영숙(94경영)=20	▲한인만(71국문)=20	▲황현근(63경계)=20
▲이형진(81정외)=20	▲전주성(61정외)=20	▲정인출(89경원)=15	▲조정원(69행원)=15	▲최수민(62행원)=15	▲한철상(75상학)=15	총계 14,750,000원
▲이환섭(78경행)=20	▲전진표(64임학)=15	▲정재달(64경영)=15	▲조정구(경원)=15	▲최수영(69경재)=20	▲한충희(91경원)=15	◆동우장학금
▲인경환(79행원)=15	▲전찬우(58정외)=15	▲정재형(84연영)=15	▲조지환(58경제)=15	▲최인웅(70경계)=15	▲허봉주(경원)=20	(단위: 만원)
▲임광호(87일문)=15	▲정광호(94경영)=15	▲정종선(69법학)=15	▲조현구(89식공)=15	▲최영호(76식공)=15	▲허진석(87국문)=15	(기간: 5월 3일~
▲임병건(95행원)=15	▲정구인(64국문)=15	▲정종철(23경원)=15	▲조현선(95경제)=15	▲최영화(92지원)=15	▲현광운(81체교)=15	9월 7일까지)
▲임병태(지원)=15	▲정국립(61정외)=15	▲정지원(78법학)=15	▲조희철(58경제)=15	▲최용종(경원)=20	▲현동환(92한의)=15	
▲임병환(64경제)=20	▲정규호(68생물)=15	▲정진기(62법학)=20	▲주상개(83경원)=20	▲최원복(72상학)=15	▲현승우(72경제)=15	
▲임성환(90회계)=15	▲정근배(73건축)=15	▲정진모(75경영)=20	▲주재문(63경제)=20	▲최용립(83경행)=15	▲현장삼(95경영)=15	
▲임용근(71법학)=20	▲정기훈(82회계)=20	▲정찬교(79무역)=15	▲주정균(60법학)=15	▲최점수(82회계)=15	▲홍성권(84경행)=20	
▲임육상=15	▲정나서=15	▲정찬명(63경영)=15	▲주정순(80전자)=15	▲최점수(95불교)=20	▲홍성호(84무역)=15	
▲임의환(경원)=15	▲정대운=15	▲정창빈(70행정)=15	▲주상개(83경원)=20	▲최점수(58불교)=15	▲홍세길(경영)=15	
▲임인도(지원)=20	▲정동재=15	▲정창호(69경제)=15	▲주재문(63경제)=20	▲최준원(83무역)=15	▲홍순영(56국문)=20	
▲임재운(72식공)=20	▲정동혁(문화)=20	▲정채봉(75국문)=20	▲주정우(89식공)=20	▲최점수(84회계)=15	▲이해자(65국문)=2	
▲임정섭(83법학)=20	▲정민수(87전기)=15	▲정채훈(89화학)=15	▲주정원(60법학)=15	▲최점수(92회계)=15	▲임애란(86가교)=1	
▲임종배(86경제)=15	▲정병원(66화학)=20	▲정천모(74무역)=20	▲주정순(80전자)=15	▲최점수(95불교)=20	▲이동화(87한의)=3	
▲임송절(86화공)=15	▲성병수(87경영)=15	▲정한영(68농경)=15	▲주정순(83경원)=20	▲최점수(95불교)=20	▲이필영(71사학)=10	
▲임종홍(88경원)=15	▲정병진(60국문)=15	▲정해도(91한의)=20	▲주전수(84전자)=15	▲최점수(95불교)=20	▲이현성(66불교)=10	
▲임지유(85한의)=15	▲정봉자(90지원)=15	▲정해룡(83경행)=20	▲주전수(80전자)=15	▲최점수(95불교)=20	▲이혜자(65국문)=2	
▲임태호(64농학)=15	▲정부자(행원)=20	▲정해섭(57농학)=15	▲주전수(83경원)=20	▲최점수(95불교)=20	▲임진우(86가교)=1	
▲장경풍(87경원)=15	▲정선미(94화학)=20	▲정홍수(62국문)=20	▲주전수(83경원)=20	▲최점수(95불교)=20	▲이동화(87한의)=3	
▲장근식(62정외)=20	▲정선진(92지원)=15	▲조규희(85영문)=15	▲주전수(83경원)=20	▲최점수(95불교)=20	▲임애란(86가교)=1	
▲장대종(경행)=15	▲정성문(91화공)=20	▲조두안(65사학)=15	▲주전수(83경원)=20	▲최점수(95불교)=20	▲이동화(87한의)=3	
▲장두수(77국문)=15	▲정수정(연영)=15	▲조민성(89국문)=20	▲주전수(83경원)=20	▲최점수(95불교)=20	▲임애란(86가교)=1	

총계 92만원

사회 교육원 개원

전학이념 계승·교육기회제공취지



지난 9월 2일 오후 2시 학술문화관 예술극장 및 학술문화관 전시실에서 사회교육원(위원장 정병조·국민윤리학) 개원행사를 가졌다.

사회교육원 개설은 모교 전학이념인 불교정신을 홍보하고 지역주변과 일반사회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그 취지를 두며 교육과정은 교

양교육과정, 전문 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으로 나뉜다. 이번 행사는 개원식, 다과회, 특강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강은 정병조교수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제목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사회교육」이다.

한편 지원자격으로는 학력 및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지난 8월 26일 1차 마감을 마쳤다.

모교 교원 보직인사

서울·경주 교원6명, 직원15명

모교는 지난 7월 1일의 직원 인사에 이어 8월 14일자로 교원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이동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 캠퍼스〉

◆교원 보직 인사

△교무처장=박부권(교육학)△학술 교류부장=한진수(회계학)△산업기술대학원 교학부장=조성구(산업공학)△학생생활연구소장서리=고진호(교육학)

◆직원인사

△교육처 입학과장=송부자△교무처 학적과장=안준옥△관리처 시설과장 직무대리=이창진△비서실 비서계장=박정훈△기획조정실 예산조정계장

=손재영△교무처 교무과장겸 수업계장=한문우△교무처 입학관리계장 겸 자료홍보계장=윤동규△관리처 시설과 건설계장=김재선△관리처 시설과 기전계장=조성문△관리처 구매계장=이천종△교무처 입학과=최광제△관리처 시설과=김종기

〈경주캠퍼스〉

◆교원 보직 인사

△부총장=김병기(국제경제학)△정각원 교법사=정무환(불교학)

◆직원인사

△교무처 입학과장직무대리=채찬호△교무처 교무과장겸 수업계장=박두관△교무처 입학과=김종진 최수호

영산대 법회 개최

한·중·일 3국 고승 모여 교류

지난 9월 11일 세계평화기원 영산대 법회가 문화예술대학원과 1백주년 기념사업본부, 정각원의 공동주최로 학술문화관에서 개최됐다. 한중일 3국의 대표적 고승들이 모여 친선을 도모하고 교류방을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제

2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가 열렸는데 이 행사의 일부인 공동법회가 모교에서 진행된 것이다. 영산대제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법회는 영산대제 평화기원법회 배송 및 심회향놀이 순으로 이어지며 김덕수 사물놀이 패가 뒷풀이를 장식했다.

'96학년도 2학기 신규교원 및 재임용

신규교원 12명, 교원 재임용 21명

96학년도 2학기 신규교원 및 재임용 인사가 지난 8월 3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이번 2학기 신규교원 인사는 총 14명으로 이미 확정됐던 5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채용이 지난 8월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서울캠퍼스 1명(전산통계학부), 경주캠퍼스 8명(미술학부 1명, 의학부 7명)이다.

신규교수는 다음과 같다. △최대석(사회과학대 북한학과 전임강사) △김무근(사회과학

대 신문방송학과 전임강사) △송의영(경상대 경상학부 부교수) △이태희(경상대 경상학부 부교수) △박재완(경상대 경상학부 전임강사) △김양우(이과대 전산통계학부 전임강사) △김호연(인문과학대 미술학부 전임강사) △조정숙(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홍성원(의과대 의학과 조교수) △윤유홍(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김웅(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양희생(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한재석(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김동준(국어교육학) △김창수(역사교육학) △장한기(연극영화학) 교수 등 10명이 명예교수로 9월 1일자 발령됐다.

교원 재임용은 서울캠퍼스 14명, 경주캠퍼스 7명 등 총 21명이고, 승진임용은 서울캠퍼스 19명, 경주캠퍼스 10명 등으로 재임용된 교원은 동시에 승진임용됐다.

한편 퇴임교수 중 △김용정(철학) △민병천(정치외교학) △안사명(정보관리학) △하덕모(식품공학) △이진규(산업공학) △김동준(국어교육학) △김창수(역사교육학) △장한기(연극영화학) 교수 등 10명이 명예교수로 9월 1일자 발령됐다.

'95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학위취득 2백61명



95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이 지난 8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90주년 기념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진행됐다. 오늘 원 이사장, 송석구 총장, 유주 험 총동창회부회장, 박익주 총

동창회 부회장, 안체린 총동창회 부회장 등 내외인사와 학위 취득자 2백6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사보고, 학위수여, 총장식사, 이시장치사, 총동창회장 축사 순으로 치러졌다. 각 대학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원 박사 47명, 석사 1백10명 ▲불교대학원 석사 4명, 관리자과정 49명 ▲행정대학원 석사 31명, 관리자과정 38명 ▲경영대학원 석사 25명, 관리자과정 32명 ▲교육대학원 석사 47명 ▲정보산업대학원 석사 10명, 관리자과정 7명, 연구자과정 5명 ▲지역개발대학원 석사 3명 ▲문화예술대학원 연구자과정 1명 등 총 4백29명이다.

교

수

동

정

▲전영일(건축공학)=9월부터 97년 2월까지 미국 MIT에서 유럽과 미국 건축교류인증제도 연구

▲김현규(교육학)=전국사범대학장 협의회 회장 피선

▲이형재(수학교육학), 이동철(의학)=96년도 2학기 교내지원 특별기금 해외연수 차 지난 9월 1일부터 1997년 2월 28일까지 미국방문

▲박동연(가정교육학)=지난 7월 18일부터 30일까지 영양학 학회 참석자 미국 고별대학 방문

▲장오현(경제학과)=지난 7월 교육부 고등교육실 실장에 임명됐다. 장교수는 "세계 변화에 맞춰 대학의 모습과 기능도 바꿔어야 한다"며 교

육개혁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경제전쟁이 치열해질수록 고급인재가 더욱 필요해지기 때문에 교육개혁은 범세계적인 추세다. 교육기관 중에서도 대학은 인재양성의 핵심이다. 가능한 최상의 인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은 계속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호(모교 명예교수)=시집 「신발이 있는 풍경」으로 월간 순수문학사에서 제정한 '영광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7월 5일 경복궁 맞은편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 서 수상했다.

▲오홍석(지리교육학)=9

월부터 97년 2월까지 미국 유타대에서 근세 한국에 대한 서구인의 지리적 인식 연구

▲이상현(경찰행정학)= 지난 7월 6일 내부부 치안정책자문위원회로 임명

▲김영재(경영학)=9월 1일부터 98년 8월까지 한국노동교육원 객원교수로 위촉

▲김철호(한의학)=지난 9월 12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국제심포지움에 참가하여 '암을 비롯한 신체질병을 해명하기 위한 생명현상 연구' 발표

▲김영길(경영학)=지난 8월 6일부터 99년 8월 8일까지의 임기로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경북 지방노동위원회 공익 위원으로 위촉.

‘쥐·바퀴 위령제’ 개최

(주)전우방제 사장 전순표 동문



(주)전우방제(대표이사=전순표·57농학)는 지난 6월 15일 모교 만해광장에서 '쥐·바퀴위령제'를 개최했다.

쥐·바퀴등 아시아 최대규모의 종합방제회사로 유명한 (주)전우방제가 기획·주최한 본 행사는 방송사·신문사등 각 매스컴의 열띤 취재와 일반인·학생등 많은 사람들의 참관속에 성대히 치뤄졌다.

(주)전우방제 대표이사이자 쥐박사로 널리 알려진 전순표 동문은 “올해로 창사 20주년을 맞아 인간의 필요에 의해 애꽃은 희생을 당해야 했던 수억만 마리의 쥐·바퀴의 영혼

을 위로하고 무자비한 인간의 소행에 대해 사죄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며 “병자년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96년도 최우수 청소년 단체선정

(사)대한불교청소년 교육연합회

사단법인 대한불교청소년 교육연합회(회장=박현성·75행원·본회 지도위원)는 ‘96년도 최우수 청소년 단체로 선정되어 지난 5월 30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사)대한불교청소년 교육연합회는 1966년 창립하여 현재 까지 30여년 동안 불교 청소년 단체로서 청소년 건전교육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 왔으며 매년 청소년 수련대회·청소년지도자연수·붓다의 메아리·청소년 송합예술경연대회와 청소년 악물남용예방캠파인·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자원봉사센터운영·지역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장학사업·소년원·교도소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실행,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하게 되었다.

정기총회 개최

영북지회

강원도 영북지회(회장=이진호·72농경·양양군 도의원, 속초·고성·양양지역)는 속초에 위치한 안암프리자에서 ‘5월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회장에 이진호동문이 선출되었으며 수

KBS 동문회 창립총회

회장에 이상원동문



KBS동문회(회장=이상원·67상학)는 지난 5월 28일 오후 6시 30분 여의도 진주 청국 임원진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번 총회는 본사와 지방(정보

산업대학원졸업자 및 계열사 동문은 추가로 등록할 예정)사 동문 80여명중 본사근무 동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고문=김재형(61국문·TV본부 제작위원)▲회장=이상원(67상학·감사실장)▲부회장=김복(69경영·방송자료실장)▲총무=권영숙(82전자계산·관재국)

했습니다.

宋兄! 1985年 3月 23日 午後 3時 가 날픈 夫人과 어린 三兄弟를 남겨 두신 채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나 섭섭하고 서럽고 哀痛스럽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떠나는 것이 당연한 真理이긴 합나마마는 兄의 떠나심은 너무 아깝고 너무 짙으십니다. 아직 떠나시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너무 못 당할 일입니다.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고 같아야 할 學問의 길도 많이 쌓여 있질 않습니까? 더구나 어린 子息들을 거두어야 할 일이 또 남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떠나심은 真實로 아쉽습니다. 몸이 다시 不便하여 病院에 入院하셨다는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 生前에 찾지 못한 아쉬움이 더욱 죄스러운 일입니다.

1978年 가을 兄의 詩集 解土에서 “墓碑銘”은 이렇게 읊으셨습니다.

영원히 문닫고 누워있다
다시 못 오르는 산 기슭
輪迴의 숨결이 여긴 없는가
비탈길을 오를 때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

이제 아주 지쳐서
깊은 잠에 들었구려
천년이나 멀리서 뛰어 보내는
회한의 발자국은 새겨서 무엇하는가

지상의 모든 맵포를 끄고
혼자 와서 혼자 있다
다 버리고 얻은 自由를 새긴
쓸쓸한 빗돌에 비가 온다
저승까지 따라가는 비여.
큰 悲哀.
꽃잎처럼 되살아날 내일이 있을까
단 한줄의 署名 없는 비명

서부회장에 김효덕(81경제·(주)이쁜이 대표이사)동문, 부회장에 김경일(67임학·양양군청 과장), 김완식(71농학·전 군의원)동문, 총무에 유문승(86한의·한의원 원장)동문이 각각 선출됐다.

동문성원에 감사
경남지부

경남지부 동문회(회장=최원우·58국문·경남매일신문사 대표)는 지난 6월 9일 오전 10시 마산시 석전동에 위치한 경남은행 본점 행사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최회장은 “그동안 미흡한 활동에도 본 경남 지부에 보내 주신 동문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한 층 심기일전하여 동문의 화합과 친목, 그리고 격의 없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남지역에 살고 있는 동문은 총무 정영호(86산공)동문에게 연락하면 된다.

정동문의 연락처는 TEL 0551)94-3311, H.P 011)571-0797번이다.

저렇게 돌아간
침묵의 목소리는 너무 무섭다
망각의 땅에 서서 되돌아 보아다오
이즈라진 한줄의 비명속에서
소리치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高敞에서 나서 자란 高敞사람
먼저 가신 兄의 명복을 빌 수 밖에 없구
려. 형! 大學 教授로 얻은 學問의 길과
詩人으로서의 얻으신 영의 길은 永遠하
리.

끝으로 兄이 쓰신 “洛花韻”을 읽어
봅니다

한 마디씩
고독한 가락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눈물나는
不滅의 땅에
떨어지는 합창, 꽃잎 바람이여
꽃은 정작
지혜로운 歸鄉으로 꽃답구나

지금 넘겨야 할 말은
잘 있어 잘 있어요로
일제히 손을 흔드는 꽃잎이여
버리고 거침없이 돌아가는 너를 보는
것
아름답구나

꽃 보라
지금 이 꽃을 보라
돌아가는 이의 미소에
지금 넘겨야 할 말은
다시와, 다시와요로
일제히 손을 흔드는 꽃잎이여

1985. 3. 24. 밤
(本名 宋在甲 詩人, 東國大學校 教授)

宋赫兄 靈前에

그는 진정한 동국인 이었다



〈방원석
동문〉

故 宋在甲(宋赫) 교수는 동대신문사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졸업후 모교 교수로 재직하며 후회양성 및 詩와 學問 연구에 정진하시다 52세를 일기로 아쉬운 작별을 하셨지만, 모교를 위해 일생을 바치며 살다가신! 동국인이다.

“한 많은 박사학위 논문이 世宗大에 서 國文科 1호로 통과되었으나 그걸 보시지 못하시고 떠나신 아쉬움이 큰 설움으로 남는다”고 한 詩人 姜敏(56국문·도서출판 수필가·본회 이사)동문이 고 송재갑 교수와 친분을 나누었던 방원석(58정외·수필가·본회 이사)동문이 고 송동문을 애도하며 쓴 수필을 소개하고자 한다.

宋赫兄 靈前에

오늘 兄의 靈前에 고개 숙일 때 허망하고 哀痛한 人生無常에 하염 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더구나 어린 三兄弟 호준과 그 동생들 의 腹中 모습은 눈물을 감추지 못하겠읍니다. 苦難과 逆境을 賢明하고 끈기 있게 이겨

채란 장학금 수여

불교정신에 입각한 여학자 배출 장려



채란 장학금(이사장=안채란·54국문·영석고등학교 이사장·본회 부회장)수여식이 지난 8월 28일 오전 11시 30분 모교 계산관 1층에서 3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여학생부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삼귀의례, 국민의례, 경과보고, 장학금 수여, 지원봉사수료증 수여, 총장축사, 안채란 이사장 축사, 사홍서원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안채란 이사장이 10명의 여학생들에게 총 7백만원(1인당 7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송총장은 축사에서 "안채란 이사장님은 일생동안 모든 모든 재산을 후학양성을 위한 교육에 투자하여 영석중고등학교

를 설립하였으며 특히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신 분"이라며 안이사장을 치하했다. 그리고 "남에게 돈을 기부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고 하며 "지금 여러분이 받는 돈의 과다를 벗어나 장학금의 큰 뜻과 의의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안채란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유일한 불교 종립 대학교인 모교에서 학사 불자인 여성 지도자를 배출한다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를 임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 후 "21세기를 눈앞에 둔 최첨단에 사는 지식인으로서 이 눈부신 과학 문화권에서 생존하려면 시고 짜고 쓰고 아픈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삶의 보람인 단 맛도 누리

게 되는 것처럼 서광의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여학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1996학년도 1학기동안(3월 18일~8월 23일)교내 여학생부처에서 관여하는 남녀학생들을 위한 학생문화복지 시설관리 및 자치행사지원에 참여, 지원봉사활동 총 110시간동안 성실히 지원봉사를 한 ▲전지향(국어교육 2)▲한혜경(법 4)▲이선주(회계 3)▲이윤정(응용생물 4)등 4명이 여학생부처장으로부터 지원봉사수료증을 받았다. 채란 장학금 수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진주(역사교육 3)▲이명진(컴퓨터공학 3)▲서향주(국어교육 4)▲오현경(법 4)▲홍영미(경제 2)▲홍진선(국어교육 2)▲임선향(지리교육 3)▲신은주(지리교육 3)▲김송희(일어일문 3)▲김혜전(국어국문 2)

월례회 모임 개최

전북지부 동문회

전북지부 동문회(회장=김삼룡·56불교·본회 부회장)는 지난 6월 14일 오후7시 호수회관에서 6월 월례회 모임을 가졌다.

이번 월례회 모임은 김진여(64·전라북도의회 부의장)동문이 만찬의 자리를 마련하여 바쁜 일손을 잠시 미루고 선·후배간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고 모교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겠습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모교 관계자를 비롯한 15만 동문이 뛰고 있습니다. 21세기 초일류 대학으로 기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한국은 교육개방으로 세계 유수대학들이 한반도의 진출을 활발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과 훌륭한 교수진, 높은 학풍을 가진 세계적인 학교가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시대에 맞서 전 국적인 각자의 맡은 바 직분에 충실히하고 동국인이라는 긍지를 가지며 학교와 사회·국가발전에 봉사하는 자세로 생활한다면 동국대학교는 마땅히 21세기 세계를 이끄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15만 동문 및 재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은.

– 동국대학교는 민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신 불교계 선각자들에 의해 구한말 설립되었습니다. 민족사학의 모태인 본 동국대학교는 수많은 인재

故 오석규 교수추모비 건립 동영회



동국대학교 동영회(회장=문선기)는 30여년을 모교 영문과에서 후학양성에 헌신하신 고 오석규 교수 추모비를 고인의 2주기를 맞아 지난 7월 23일 신세기공원 묘원 고인의 유택에 건립했다.

1956·1957년도 입학동기 및 1961·1962년도 졸업동기생을 중심으로 추진된 본 추모비는 유가족의 간곡한 요청에 의하여 널리 알리지 못한 채 고인의 생전의 인품에 맞게 아담한 크기로 건립되었다.

본 추모비 건립 모금 성금에는 쉐라톤 워커힐 대표이사 심경모동문을 비롯하여 이기준, 김유광, 윤병섭, 김용필, 이해권, 이정우, 박영기, 정순홍, 최석, 최학순, 하건진, 최명재동문 등이 앞장섰고 모교 이부대학장 허천택(61영문·본회 이사)교수가 추모비 건립을 발의하였다.

를 배출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동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동창회나 학교에서 무엇을 해주길 바라기 전에 각자 자신이 동창회나 학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 행하는 것이 장기적인 동국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동창회 활동에 어떻게 참여할 계획입니다.

– 연락 가능한 동문들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동창회 행사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동안 회사내의 일에 충실했으나 이제는 동창회를 위해 적극 일할 생각입니다. 물론 회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겠죠.

▲동문으로서 선후배 동문을 보는 견해는.

– 선후배와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되도록 많이 마련하여 서로 마주 앉아 발전적인 얘기를 나누는 것이 서로의 발전과 동창회, 모교,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동국인은 의리

뿐만 아니라 비문을 직접 작성했다.

본회 사무처 인사



신돌영 김수경

본회 사무처는 김영환(67정외)사무처장이 지난 7월 10일 자로 퇴임함에 따라 같은 날 신돌영(73법)동문을 신임 사무처장으로 인사발령했다. 신돌영 신임사무처장은 대한교육보험, 나드리 회장품상무 등에 재직한 바 있다. 또한 본회 사무처는 지난 7월 1일자로 김수경씨를 직원으로 인사발령했다. 김수경씨는 96년 2월 모교 전산원을 졸업했다.

를 지키는 진정한 사람들 집단이나 자기 개발에 좀더 주력한다면 최고의 위치에서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유한양행지부 동문회 활성 방안은.

–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우리는 동국인이라는 것을 느끼며 산행등 단합행사로 동문들 간의 신의를 훈련히 하겠습니다. 또한 30명의 동문들이 단합하여 총동창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본 지부를 더욱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평소의 생활신조나 좌우명은.

– 자신에게 무슨 일이 맡겨지더라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치실히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안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생활해 왔으며 앞으로도 나는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저의 좌우명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문인터뷰

유한양행 차중근동문을 찾아



본 기자는 지난 8월 26일 유한양행 지부를 찾았고 지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한양행지부를 회사 내에서 영향력 있는 지부로 만드는데 큰 끼를 한 차중근(68상학·유한양행 총무인사재정담당 상무)동문을 찾아 그간의 활동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얘기해 나누었다.

차동문은 지난 74년 유한양행 영업부에 입사하여 유한양행과 인연을 맺었다. 그후 차동문은 기획실(감사과), 공장 관리부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치며 승진하여 지금은 총무인사재정담당부무로 근무하고 있다.

20년이 넘게 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물론 어려웠던 점도 많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좌우명이 말해 주듯이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 오늘의 위치에 이를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은 차동문과 나눈 1문 1답이다.

▲귀 동문이 버리는 총동창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동창회는 근간에 동우장 학회를 설립하여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북돋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국인 체육대회 및 동국인의 밤 등 동국인들의 행사를 개최하여 동국인의 긍지를 키우고 동문들간의 협력을 이끌어 냈지만 앞으로는 전 동국인들이 참가하고 하나될 수 있는 행사를 기획 추진하여 15만 동문간의 결속을 더욱 굳건히 하

고 모교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겠습니다.

– 지금 한국은 교육개방으로 세계 유수대학들이 한반도의 진출을 활발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과 훌륭한 교수진, 높은 학풍을 가진 세계적인 학교가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시대에 맞서 전 국적인 각자의 맡은 바 직분에 충실히하고 동국인이라는 긍지를 가지며 학교와 사회·국가발전에 봉사하는 자세로 생활한다면 동국대학교는 마땅히 21세기 세계를 이끄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21세기에는 동국대학교가

– 동국대학교는 민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신 불교계 선각자들에 의해 구한말 설립되었습니다. 민족사학의 모태인 본 동국대학교는 수많은 인재

우리의 손으로 장학기금 확충을...

獎學基金 募金 參與 案內

- 財團法人 東友獎學會는 1995년 2月21日 設立되었으며 資產 規模는 96년 현재 4億1千萬원으로 東友獎學會 基金 10億을 目標로 하고 있습니다.
- 東友獎學會 基金 擴充計劃을 조속히 達成하기 위해 1구좌당 10,000원으로 정하고, 全同門이 1人당 1구좌 이상各自의 事情에 따라 參與할 수 있도록 本會 第18次定期總會(95. 6.2)를 맞이하여 決議한 바 있습니다.
- 獎學基金 募金에 參與하실 분은 本 約定書를 事務處로 提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約定書에 記載된 구좌(金額)와 住所에 따라 當 金額의 지로용지를 보내드립니다.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사무처 주소

110-300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신관3층 2호 ☎ 733-3991/3

財團
法人

東友獎學會



제1-497 호

법인설립허가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아래 법인의 설
립을 허가한다.

- 법인명: 재단법인 동우장학회
- 대표자: 황명수 (黃明秀)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 정관: 별첨

1995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東友獎學會 基金 募金 參與 約定書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貴下

本人은 東友獎學會 定款 [第1條(目的)]이 法人은 社會一般의
利益에 供與하기 위하여 公益法人의 設立 運營에 관한 法律의
規程에 따라 東國大學校 學生·卒業生·敎職員에게 獎學事業 등을
實施하여 國家 社會에 奉仕할 수 있는 指導的 人物을 養成하고
敎育文化 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에 明示된 財團法人
東友獎學會 目的에 적극 共感하면서 ()구좌
()원을 東友獎學會 基金 募金에 參與할 것을 約定합
니다.

1996年 月 日

約定者(卒業年度/學科): 大學(院) 學科 年度
(姓名): (인) 또는 사인

自宅:
職場:
住所:

□
□
□